

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

미 소기업 심리와 PPI 가 되살린 증시

Key Takeaways

- 주요 지수 일제히 반등...나스닥 +2.4%, S&P500 +1.7%
- IT 3.0%, 경기소비재 +2.4% 상승...스타벅스 +24%(일간 최대 상승폭 기록)
- 달러인덱스 7개월래 최저 기록

Summary

- 미 증시는 소기업 심리가 4개월 연속 개선된 점과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. S&P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 1일과 2일 발생한 갭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걸 방지. 특히, 7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93.7로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. 세부적으로는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와 재고확충 계획이 크게 늘어남. 이는 7월 들어 본격화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. 또한,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.1%, 전년 대비 2.2%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함. 세부적으로 상품 가격은 에너지(+1.9%)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폭인 0.6% 상승했지만, 서비스 가격은 무역 서비스(-1.3%)로 인해 202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인 0.2% 하락함. 이는 향후 개인소비지출(PCE) 물가 하방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을 높임. 반면, 유로존 및 독일의 ZEW 경기대지수는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. 엔비디아, 테슬라 등 주요 기업들의 강세 속에 IT가 3% 넘게 상승하였고 스타벅스는 치폴레 성장을 이끈 브라이언 니콜 CEO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상장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폭인 24.5% 상승을 기록함.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기대감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의 하방 압력을 높임. 특히, 달러인덱스는 지난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. 최근 증시 반등 영향으로 VIX 지수는 전일 대비 13% 가까이 하락한 18.11을 기록하며 7월 말 수준인 16~17 수준까지 하락함. (다우 +1.0%, 나스닥 +2.4%, S&P500 +1.7%, 러셀2000 +1.6%)

특징종목

- 스타벅스(+24%)는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즉시 호하고 치폴레(-7.5%) 성장을 이끈 브라이언 니콜을 새로운 CEO로 임명. 이에 두 기업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을 보임. 스타벅스의 이러한 조치에 베어드, 파이퍼샌들러, TD코웬 등 월가 IB들은 일제히 투자 의견을 '상향' 하였음. 스타벅스의 이 날 상승률은 1992년 7월 상장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폭으로 이전 기록은 2009년 7월 22일(+18.4%)이었음.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IT(+3.0%), 경기소비재(+2.4%) 등을 중심으로 S&P500의 11개 섹터 중 에너지(-1.0%)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하였음. 특히, 엔비디아(+6.5%), 테슬라(+5.2%)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의 강세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임.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VanEck 반도체 ETF는 일제히 4% 이상 상승하며 최근 낙폭을 빠르게 줄여 나감. 최근 미 대선 여론 조사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Invesco 와일더힐 청정 ETF(+5.3%), Invesco 태양광 ETF(+3.6%)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및 ETF 강세가 지속됨. 반면, 홈디포(+1.2%)는 동일 매장 매출 감소와 FY25 매출 전망을 낮추며 장중 약세를 보였으나 상승 마감. 이외 텐센트 뮤직(-15%)은 실적 부진, B.라일리 파이낸셜(-11%) 손실 확대 영향으로 하락.

채권, 외환 및 상품 동향

-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국채 시장은 일제히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. 특히, 2년물이 낙폭이 더 큰 '불 스티프닝'이 나타나며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차 역전폭도 전일 대비 소폭 줄어든 -9bp를 기록함. 달러는 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함. 국제 유가는 1%대 약세를 기록함.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중국의 수요 축소로 인해 향후 원유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.

한국증시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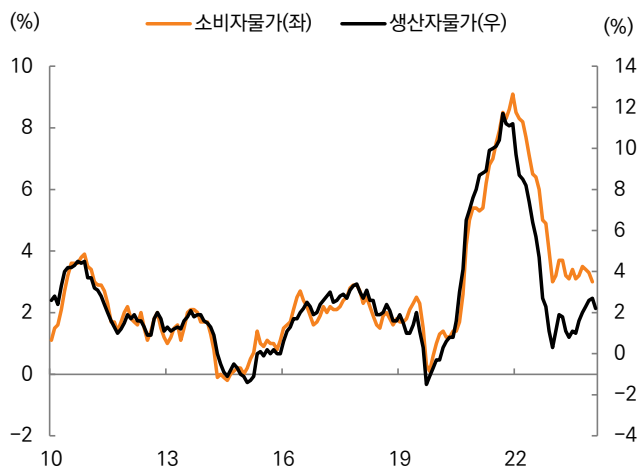
- MSCI 한국 지수 ETF는 2.1%, MSCI 신흥국 지수 ETF는 1.1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36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/원 환율은 전일 대비 8원 하락 출발 예상. Eurex KOSPI200 선물은 1.3% 상승 마감. 대형주 중심의 Risk-on 확산 기대.

그림 1.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추이(2024년)

	최종수요	최종수요 (식품, 에너지, 무역 제외)	최종 수요 상품				최종 수요 서비스				전년대비	전년대비 (식품, 에너지 및 무역 제외)
			전체	식품	에너지	식품 및 에너지 제외	전체	무역	운송 및 창고업	기타		
2024년 1월	0.4	0.6	-0.1	-0.3	-1.1	0.3	0.6	0.1	-0.2	0.9	1.0	2.7
2월	0.6	0.4	1.1	1.0	3.9	0.3	0.3	0.3	1.2	0.3	1.6	2.8
3월	0.0	0.2	-0.2	0.3	-1.2	0.0	0.1	-0.4	0.2	0.3	2.0	2.9
4월	0.5	0.5	0.4	-0.7	1.8	0.3	0.6	0.5	-0.5	0.7	2.3	3.2
5월	0.0	0.2	-0.8	-0.1	-4.6	0.2	0.4	0.7	-0.8	0.4	2.6	3.4
6월	0.2	0.1	-0.4	0.1	-2.1	0.0	0.4	1.4	-0.1	0.1	2.7	3.2
7월	0.1	0.3	0.6	0.6	1.9	0.2	-0.2	-1.3	0.4	0.3	2.2	3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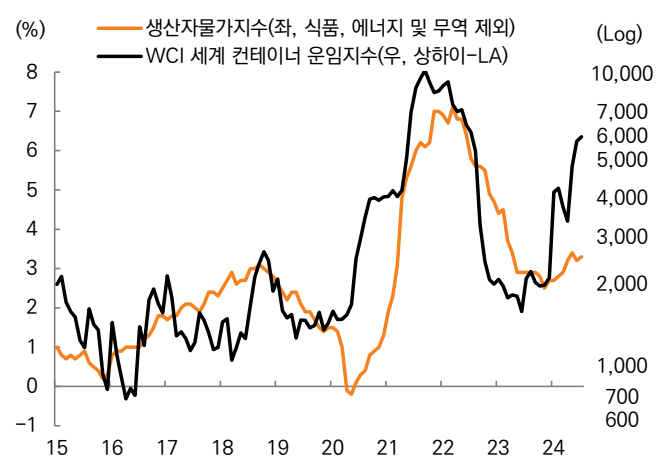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2. 미국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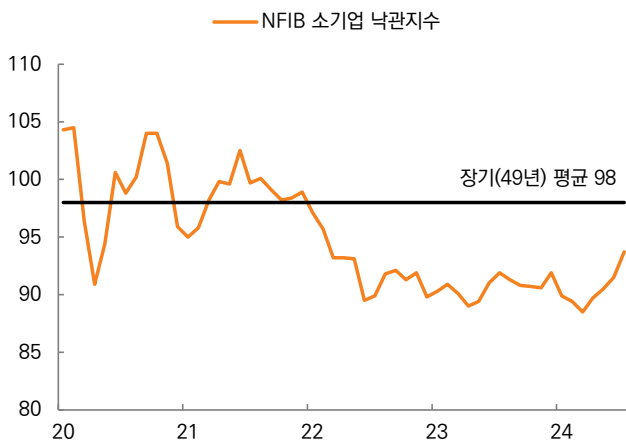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S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3.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간 상관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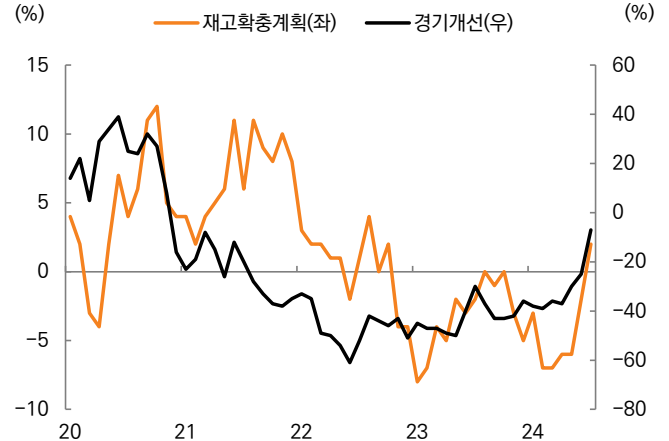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4.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



자료: NFIB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그림 5. 미국 소기업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재고확충 계획 증가



자료: NFIB,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Market Snapshot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(%)	ETF 종류	등락률(%)
원유시추업체 ETF (XOP)	-1.0	대형 가치주 ETF (IVE)	+0.8
클린테크 ETF (CTEC)	+4.6	중형 가치주 ETF (IWS)	+1.1
소매업체 ETF (XLY)	+2.5	소형 가치주 ETF (IWN)	+1.6
온라인소매 ETF (EBIZ)	+3.0	대형 성장주 ETF (VUG)	+2.2
미국 인프라 ETF (PAVE)	+1.3	중형 성장주 ETF (IWP)	+1.8
핀테크 ETF (FINX)	+2.6	소형 성장주 ETF (IWO)	+1.6
소셜미디어 업체 ETF (SOCL)	+0.6	퀄리티 배당주 ETF (QDIV)	+1.5
클라우드 ETF (CLOU)	+1.9	신흥국 고배당 ETF (SDEM)	+0.5
사이버보안 ETF (BUG)	+1.9	신흥국 저변동 ETF (EEMV)	+0.3
전기차&자율주행 ETF (DRIV)	+2.3	미국 국채 ETF (IEF)	+0.4
글로벌 2차전지 ETF (LIT)	+2.3	하이일드 ETF (JNK)	+0.5
바이오섹터 ETF (IBB)	+1.4	신흥국 채권 ETF (EMBD)	+0.5
로봇&AI ETF (BOTZ)	+2.4	물가연동채 ETF (TIP)	+0.2
반도체 ETF (SMH)	+4.1	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(LQD)	+0.4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(%)	D-5(%)	D-20(%)
IT	4,173.71	+3.0	+6.6	-7.9
경기소비재	1,428.42	+2.4	+3.1	-8.1
커뮤니케이션	298.99	+1.5	+3.9	-3.8
헬스케어	1,760.97	+1.2	+2.5	+1.9
산업재	1,057.24	+1.1	+2.4	+0.6
소재	561.40	+1.0	+0.7	-1.6
금융	706.34	+0.8	+2.4	+0.3
부동산	262.40	+0.7	+0.6	+4.6
유틸리티	376.02	+0.5	+1.7	+3.9
필수소비재	847.87	+0.5	+1.1	+2.3
에너지	682.75	-1.0	+2.3	-1.4

글로벌 FICC 동향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78.35	-2.0	+7.2	Dollar Index	102.62	-0.5	-0.3
브렌트유	80.69	-1.8	+5.7	EUR/USD	1.10	+0.6	+0.6
천연가스	2.15	-1.1	+7.7	USD/JPY	146.88	-0.2	+1.8
금	2,507.80	+0.1	+3.1	GBP/USD	1.29	+0.8	+1.4
은	27.79	-0.3	+2.6	USD/CHF	0.87	-0.0	+1.6
알루미늄	2,326.00	+0.9	+1.3	AUD/USD	0.66	+0.7	+1.8
전기동	8,978.50	-0.5	+0.6	USD/CAD	1.37	-0.3	-0.6
아연	2,687.50	-2.0	+3.3	USD/RUB	91.02	+0.1	+6.2
옥수수	397.25	-1.1	-2.0	USD/BRL	5.45	-0.8	-3.7
밀	528.75	-1.5	-2.7	USD/CNH	7.15	-0.4	-0.1
대두	962.50	-2.5	-6.4	USD/KRW	1,366.50	-0.2	-0.8
커피	229.05	-4.0	-1.7	USD/KRW NDF1M	1,360.24	-0.5	-0.9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3.85	-5.7	-4.5	스페인	3.03	-5.3	-3.8
한국	2.98	-2.7	-2.2	포르투갈	2.82	-5.0	-3.9
일본	0.85	-0.6	-5.4	그리스	3.27	-6.6	-5.4
독일	2.19	-4.0	-1.5	이탈리아	3.58	-6.5	-7.8

자료: 블룸버그,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